

광주비엔날레재단·특별전 큐레이터 기자회견



광주비엔날레재단과 13일 '세월오월'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9월16일 대토론회를 통해 작품 전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용우 재단 대표이사, 정연식, 미셀 현, 장경화 큐레이터 등이 참석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세월오월' 전시 여부 토론회로 결정

9월 16일 토론회... 홍성담 작가 "재단·큐레이터 책임 회피 의도"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오월' 전시 유보 사태가 견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작품 전시'에 관련된 대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광주정신'을 주제로 한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의 미는 '사전 검열'이라는 논란 속에 이미 퇴색, 국제사회 속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주비엔날레재단과 특별전 큐레이터 6명은 재단 사무실에서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16일 홍 작가의 '세월오월'로 인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작품 전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 "대토론회는 홍 작가 작품의 미학적 평가는 물론 특별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이나 전시유보, 그리고 민주사회에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어떻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그 책임은 무엇인가를 토론했 계획"이라며 "논의와 행사의 출속을 피하기 위해 4주간의 준비기간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해 특별전 전시장에 단 한점의 작품이 남아 있더라도 전시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대토론회를 통해 생산된 내용을 토대로 큐레이터들에게 다시 한 번 작품의 전시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하지만 큐레이터가 전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재단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단이 준비하는 대토론회가 이번 사태를 얼마만큼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여전히 작가는 공개되지 않은 그림을 '대토론회'라는 '검증대'에 올린다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온 재단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당장 해외 작가들의 작품 철거는 막아보자'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앞서 이번 특별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케테 콜비치의 작품을 대여해준 일본 오키나와 사키마미술관 사키마 미치오 관장 등 일본 작가들이 "만일의 경우 작품을 철거할 수도 있다"고 밝혀왔음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홍 작가는 이날 통화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것 자체가 큐레이터와 재단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며 "공개되지도 않은 작품을 가지고 대토론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 "대토론회를 통해서 그림을 걸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지 말고, 일단 큐레이터들이 자기 책임감을 갖고 그림을 전시한 뒤에 9월16일 (대토론회)이후에 이 작품의 전시를 계속 전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광주비엔날레의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문화적인 행위"라며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본래대로 전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 "광주시는 시의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이유로 사전 검열을 통해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였으며 오히려 정당화하려고 했다"며 "이는 문화행정의 기본 원칙인 '팔길이 원칙'을 파괴한 것이자, 민선 6기 시정 목표의 하나인 '꿈꾸는 문화도시'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고 지적했다.

한편 사키마미술관 사키마 미치오 관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직 철거를 결정하지 않았다. 지금도 존중하는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혼란을 극복하고 전람회의 근본적인 이념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 "(이번 사태는) 예술 표현에 광주시의 공무원이 정치의 힘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본다"며 "예술가가 '인간의 생명, 존엄'을 위해 표현한 작품을 존중하고, 그것을 세계에 발신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고, 광주비엔날레에 광주정신을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시, 18일 비엔날레 거시기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의 발전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18일 오후 3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거시기홀에서 디자인비엔날레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5회에 걸쳐 치러진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고 개선점과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행사 개최를 위탁해온 광주시가 디자인비엔날레 관련 토론회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토론회는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센터의 행사성과와 지역 참여방안에 대한 발표, '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과분석과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지정토론회와 자율참여자 공동토론회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송진희(호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광주전남디자인협회, 한국디자인기업협회, 한국미술협회 등이 참가한다. 시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 내년 열리는 제6회 디자인비엔날레 추진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와 일상 탈출

'천원의 낭만' 8월 행사... 18일 광주문예회관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 8월 행사가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조대순님은 '음악을 통해 일상에서 탈출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EXIT·사진)다.

2006년 용문고 중창단 선배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컨텐포러리 아카펠라그룹으로 디지털 싱글 '담배가게 아가씨'를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엑시트는 기존의 아카펠라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금까지 POP, 아이돌댄스, R&B 등의 곡을 엑시트 특유의 아카펠라 화음과 비트감을 섞은 색다른 음악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에서는 드라마와 영화 O.S.T 그리고 대중가사를 들려준다.

엑시트는 오는 16일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정상 아카펠라 그룹 6개팀의 갈라 콘서트인 'Voice of Asia'에도 출연한다. www.giasia.org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



여름방학을 맞아 광주신세계갤러리는 광주신세계 1층 컬처스퀘어와 전시장에서 현대미술을 관람객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하는 사물, 이야기하는 공간'전을 열고 있다. 전시는 19일까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낮설음이 예술이다... 로비가 갤러리다

광주신세계갤러리 19일까지

백화점 1층에도 작품 전시

백화점 1층 로비에 들어서 독특한 형태의 의자, 로비를 유영하는 대형고래, 귀여운 캐릭터로 장식된 벤치 등이 관람객들을 현대미술의 세계로 이끈다. 일상 속 익숙한 사물과 공간이 일상의 옷을 벗고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건넨다.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여름방학을 맞아 준비한 여름방학특별전 네 번째 이야기 '이야기하는 사물, 이야기하는 공간'이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신세계갤러리는 물론 백화점 1층까지 확장돼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예술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것이

다'라는 의미를 내포한 전시로, 신세계갤러리는 대표 기획 중 하나다.

올해는 '사물과 공간'이라는 김병진·김신혜·김지민·서희화·송은영·송준호·우주연·윤정미·유주·이상원·임창민·장형근·정해련·채우승·STUDIO1750 등 1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장 입구 컬처스퀘어에 설치된 STUDIO 1750의 '숨쉬는 의자', 커다란 샤워기 형태의 '꽃망' 그리고 전시장에서 수증기 막에 영상이 맺히는 임창민씨의 작품 등이 관람객의 시선을 끈다. 문의 062-360-1271. /김경민기자 kki@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